[프레스룸] 공공 배달앱도 코스콤 클라우드에서 구축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지역화폐 기반 공공배달앱 클라우드 *SaaS* 서비스 구축
코스콤 사내벤처 출신 '㈜미식의시대' 플랫폼 개발 추진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와 공공 배달앱 지원 협력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 배달앱을 코스콤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스콤(사장 정지석)은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공공배달앱이 지금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공클라우드(KPaaS-TA 플랫폼)의 소프트웨어(SaaS)형태로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KPaaS-TA란 코스콤이 구축·운용하는 개방형 PaaS의 서비스형 플랫폼으로, 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스콤이 제공하는 플랫폼 위에 보다 빠르고 손쉽게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코스콤 사내벤처에서 독립한 '(주)미식의시대'가 관악구와 함께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 공공배달앱은 기존 배달앱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역점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수십여 곳의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 현재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다양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크루페이'와 개인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음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와 '㈜미식의시대'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음 달(6월) 출시를 목표로 관악구 전용 공공배달앱을 준비 중이다.

□ 컨소시엄은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구축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지자체는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급하면 돼 사실상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코스콤 관계자는 "올해 6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향후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화

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 서비스는 확장성이 우수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구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코스콤은 자본시장 IT 인프라와 금융 클라우드 전문 기관으로 앞으로 늘어날 공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최적의 기업으로 평가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